

## 중소 IT기업 수출지원체계 대폭 강화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는 지난 8일 중소기업체의 해외진출 지원 전담 산하기관인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ICA)'의 법적 설치 근거를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마련하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ICA는 단순한 수출지원 기능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유치, 해외진출 자금지원 및 국제교류협력 등 해외협력에 필요한 종합적 정책지원기관으로 기능이 확대된다.

정통부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현재 ICA가 운영 중인 'IT수출정보데이터베이스(ITX; www.itx.or.kr)'를 고객 지향적인 시스템으로 개편, 현재 18개 품목 1만2000여 개 콘텐츠에 그치고 있는 수출 정보를 연말까지 20개 품목, 5만여 개 콘텐츠로 확대할 방침이다.

## 정통부, 정보통신업체의 산업기능요원 배정 추천

정보통신부는 오는 31일까지 정보통신업체로부터 산업기능요원 배정 신청을 받는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현역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중 산업체근무를 원하는 사람을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된 업체에 근무하도록 해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다.

추천대상 업종으로는 정보통신기기제조업과 정보처리관련업이고, 신청자격은 종업원수 30명 이상(상시 근로자수)의 법인기업으로서 사업자등록 및 공장등록(정보통신기기제조업에 한함)을 마친 회사다. 연구개발 및 기술력보유 기업, 수출기업, 여성대표자 기업, 지방소재기업, 장애인고용기업 등을 우대한다.

정통부는 평가를 거쳐 8월 말까지 병무청에 추천하고 병무청은 10월 말까지 신규 업체 선정과 인원 배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참여방법은 정보통신부(<http://www.mic.go.kr>) 및 한국IT중소벤처기업연합회(<http://www.picca.or.kr>) 홈페이지에서 관련서류 및 안내서를 내려받거나, 지방체신청 및 PICCA에서 교부받아 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IT 중소벤처에 신성장동력 기술개발 지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원장 김태현)은 지난 2일 산업경쟁력 강화사업을 통해 IT 중소벤처기업에 신성장동력사업 기술개발 분야의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키로 했다.

산업경쟁력 강화사업은 IT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2년 이내 기술개발을 통해 IT신시장 창출, IT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술적 가치 및 상업적 혁신 가능성이 큰 산업을 지원, 육성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20억원 이내로 출연지원하고 민간이 매칭펀드로 공동투자한다.

지원되는 기술 분야는 '바이너리 CDMA방식의 무선 멀티미디어 전송모듈 개발' 등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에 4개 과제, '홈게이트웨이용 침입대응 솔루션 개발' 등 홈네트워크 분야에 6개 과제 등이다. 또 'e-매뉴팩처링을 위한 서비스기반 통합 인터페이스 개발' 등 SW솔루션 및 디지털콘텐츠 분야에 8개 과제 등 모두 55개 세부 과제에 2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지원된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오는 30일까지 신청과제 접수와 평가를 통해 8월 말 최종 적격기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벤 처 이 슈

## 전자신문



▲ 7월 8일 전자신문 3면

정부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대책'은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경제를 활성화시킨 원동력이었던 중소·벤처기업 활성화의 불꽃을 다시 한번 실려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천명으로 평가한 특집기사

## 한국경제



▲ 7월 8일 한국경제 A14면

규모는 작지만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벤처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위세를 떨치고 있음을 보도한 기사